

# 요엘서와 라오디게아의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 - 제22호

Jeff Pippenger

2026-01-02

## 22번

우리는 이전 글에서 고대 이스라엘에 대한 네 가지 언급 가운데 '독사의 세대'에 관한 논의를 절반까지 진행했다. 마태복음에서 요한과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모두 '독사의 세대'라고 부른다. 요한은 자신 뒤에 오실 예수께서 그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깨끗이 하실 것이라고 가르치면서, 시험 과정의 시작을 대표한다. 예수님은 스바의 여왕과 니스웨를 언급하시며 심판의 과정을 포함시키심으로써 요한의 시험 과정에 더하셨다. 심판은 네 번째 세대에 일어나며, 그 심판에서 한 부류는 아버지가 마귀이므로 뱀으로 나타난다. 예수님은 표적이 눈앞에 있는데도 네 번째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는 문제를 덧붙이셨다.

마태복음 23장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게 내리는 "화"가 제시되어 있으며, 시험과 심판의 과정이 다시 마지막 세대와 연관된다. 22장은 23장의 "화"에 대한 배경을 준비한다.

바리새인들이 모여 있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는 누구의 아들이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으로 어떻게 그를 주라 부르며 말하였느냐.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을 네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니라. 다윗이 그를 주라 부른다면, 어찌 그가 다윗의 아들이겠느냐?

아무도 그에게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었고, 그날 이후로는 아무도 감히 그에게 더 이상 질문하지 못했다. 마태복음 22:41-46.

더 이상의 상호 작용이 불가능하도록 문이 닫히자, 예수께서는 다음 장에서 여덟 가지 화를 선포하신다. 13절에서는 하늘나라의 문들을 닫는 일에 대하여 화가 선언된다. 늦은 비는 하늘의 문들로부터 쏟아진다. 여덟 가지 화는 아무도 열 수 없는 문을 자신들이 열 수 있다고, 아무도 닫을 수 없는 문을 자신들이 닫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에 관한 것이다. 환상 중에 화이트 자매는 그리스도를 따라 지성소로 들어가지 않은 자들이 빈 성소로 그들의 기도를 보내는 모습을 보았다. 그곳에서 사탄은 그리스도인 체하며 그들로 하여금 모든 것이 괜찮다고 믿게 만들었다. 그들은 성소를 다시 열고, 지성소를 닫아 버렸다.

"많은 이들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행로를 경악하며 바라본다. 그들은 그분께서 수치스러운 학대를 당하신 역사를 읽으면서 자신들은 그분을 사랑하며, 베드로처럼 그분을 부인하지도, 유대인들처럼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여긴다. 그러나 모든 사람의 마음을 읽으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느낀다고 공언하는 예수에 대한 사랑을 시험대에 올리셨다. 온 하늘은 첫째 천사의 기별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를 가장 깊은 관심으로 지켜보았다. 그러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자처하고, 십자가의 이야기를 읽으며 눈물을 흘리던 많은 이들은 그분의 오심에 대한 복된 소식을 조롱하였다. 그 기별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기는커녕, 그것을 미혹이라고 선언하였다. 그들은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자들을 미워하여 교회에서 내쫓았다. 첫째 기별을 거절한 자들은 둘째 기별로부터 유익을 얻을 수 없었고, 또한 믿음으로 예수와 함께 하늘 성소의 지성소에 들어가도록 준비시키는 밤중 소리로부터도 유익을 얻지 못하였다. 그리고 앞선 두 기별을 거절함으로써, 그들의 이해는 너무나 어두워져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을 보여 주는 셋째 천사의 기별에서 어떤 빛도 보지 못하게 되었다. 나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명목상의 교회들이 이 기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보았다. 그러므로 그들은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을 알지 못하며,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예수의 중보로부터 아무 유익도 받을 수 없다. 무익한 제사를 드리던 유대인들처럼, 그들은 예수께서 떠나신 구역에 무익한 기도를 드린다. 그리고 사탄은 이 기만을 기뻐하여 종교적인 외양을 취하고, 자칭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이끌며, 자신의 권세와 표적들과 거짓 기적으로 역사하여 그들을 자신의 울무에 단단히 잡아매기 위해 일한다." 초기문집, 258-261쪽.

14절은 과부들의 집을 삼키고 긴 기도를 하는 것에 대한 화이다. 15절의 화는 그들이 개종자들을 자신들보다도 두 배나 더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하는 것에 대한 것이다.

16절부터 22절에서는 악한 자들이 성전을 두고 맹세한다.

이 말들은 화이트 자매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며, 그분의 사자가 너희에게 전하라고 내게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더 이상 그분과 엇갈린 목적을 가지고 일하지 말라고 촉구하신다.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주장하면서도 사탄의 속성을 드러내고, 정신과 말과 행동으로 진리의 전진을 대적하며, 사탄이 이끄는 길을 분명히 따라가는 자들에 관하여 많은 훈계가 주어졌다. 그들은 마음이 완악하여 결코 그들에게 속하지도 않고 그들이 행사해서도 안 될 권위를 움켜쥐었다. 위대한 스승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뒤엎고, 또 뒤엎고, 또 뒤엎으리라." 배틀크릭에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성전, 여호와의 성전은 우리라" 하지만 그들은 속된 불을 사용하고 있다.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부드러워지고 굴복하지 않았다. Manuscript Releases, 제13권, 222.

23절과 24절에서는 정의, 긍휼, 신실함을 소홀히 한 것에 대한 화를 선포한다. 25절과 26절은 잔의 겉은 씻는 체하면서 속은 그대로 두는 위선에 관한 것이다.

"우리가 이 보배를,' 사도는 말을 이었다, '질그릇에 가지고 있으니, 이는 지극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님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나님은 죄 없는 천사들을 통해 자신의 진리를 선포하실 수도 있었지만, 이것이 그분의 계획은 아니다. 그분은 자신의 계획을 이루는 일의 도구로 연약함에 둘러싸인 인간, 곧 사람들을 택하신다. 값으로 헤아릴 수 없는 보배가 질그릇에 담긴다. 사람들을 통해 그분의 축복이 세상에 전해지도록 되어 있다. 그들을 통해 그분의 영광이 죄의 어둠 속으로 빛을 발하도록 되어 있다." 사도들의 행적, 330.

그런 다음 27절과 28절은 악인을 회칠한 무덤에 비유하며, 이사야 22장의 셉나와 연결된다. 셉나는 자신이 만들고 있던 화려한 무덤을 자랑했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자신의 입에서 뱉어 먼 들판으로 던지실 것이었기에 그 안에 결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었다. 그 먼 들판은 베엘의 거짓 선지자의 무덤으로 상징되는데, 그가 불순종한 선지자를 이끌어 같은 무덤에 장사되게 했다. 그런 다음 여덟 번째 화는 이렇게 말한다: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선지자들의 무덤을 세우고 의인들의 무덤을 단장하며,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조상들의 때에 있었다라면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는 일에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니, 그러므로 너희가 스스로 증언하되 너희가 선지자들을 죽인 자들의 자손임을 증언하는도다. 그런즉 너희 조상들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형벌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노니, 그들 중 더러는 너희가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으며,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그들을 이 성에서 저 성으로 쫓아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리하여 땅 위에서 흘린 모든 의로운 피, 곧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너희가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베레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에 이르기까지가 다 너희에게 임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모든 것이 이 세대에 임하리라. 마태복음 23:29-36.

본문에서는 '독사의 세대'로 불리는 자들이 심판을 받고 있다. 그 본문에서 그 심판은 스바의 여왕과 니스웨 사람들의 증언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아벨로부터 스가랴에 이르기까지의 피에 근거한다. 독사의 세대인 네 번째 세대는 고대 이스라엘의 외적 역사에서 온 두 증인과 내적 역사에서 온 두 증인에 의해 심판을 받는다. 누가복음 3장은 네 번째이자 마지막 세대의 독사들에 대한 네 가지 언급 중 마지막이며, 단지 마태복음 3장의 병행 구절일 뿐이다. 그 네 가지 언급은 하나님의 집에 대한 최종 심판, 곧 네 번째 세대 동안에 한 부류는 사탄의 아들딸로서의 품성을, 다른 부류는 하나님의 아들딸로서의 품성을 드러내게 됨을 밝힌다. 그리고 분리를 일으키는 시험 과정은 언약의 사자를 위한 길을 예비하는 사자가 광야에서 그의 음성을 높일 때 시작된다.

성경의 거룩한 직조 속에서 이름은 단순한 꼬리표가 아니라, 구속의 핵심을 드러내는, 역사의 표면 아래에서 불리는 속삭이는 예언—두 번째 노래들이다. 아담에서 노아에 이르는 후손들의 이름 뜻을 문장으로 정리하면, 그 족보가 나타내는 역사와 상응하는 메시지가 나온다. '아담'은 '사람', '셋'은 '임명된 자'를 뜻한다. '에노스'는 '죽을 자'(죽음에 종속된), '게난'은 '슬픔'을 뜻한다. '하나님의 찬양/축복'(마할랄엘)을 통해 하늘이 '내려올'(야렛) 것이었다. 하늘은 '헌신된 자/기름 부음 받은 자'(에녹)로 내려왔고, 그는 아들 므두셀라('그가 죽을 때 그것이 보내질 것이다')를 통해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다. 그의 죽음은 '강력한' 성령의 부어짐의 절정이 될 것이었는데, 이는 므두셀라와 합류한 라멕(호흡)으로 대표되었으며, 마치 한밤중의 외침이 둘째 천사와 합해진 것과 같았다. 므두셀라는 둘째 천사였고, 라멕은 노아의 홍수에서 절정을 이룬 한밤중의 외침이었다.

더 요약하면, 그 이름들은 이렇게 선언한다: "인간은 첫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슬픔과 죽음 아래 놓인 죽을 존재로 정해졌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리스도께서는

내려오시기로 자신을 바치시고,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통해 심판을 선포하셨으며, 그 뒤를 성령의 강력한 부으심이 이었다."

이 열 개의 이름은 창조에서 늦은 비에 이르는 세상의 역사를 따라가며, 재림으로 절정을 이루는 복음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름들 속에 숨겨진 이 상징은 요한계시록에서 그 대응점을 찾는다. 창세기는 알파의 계보를 제시하고, 요한계시록 7장의 14만 4천은 인침 받은 남은 자들 안에서 오메가의 성취를 보여준다.

유다는 "찬양"을 뜻하고, 르우벤은 "보라, 아들이다"를 뜻하며, 갓은 "행운/군대"를 뜻하고, 아셀은 "행복/복됨"을 뜻하며, 납달리는 "씨름"을 뜻한다. 므낫세는 "잊게 함"을 뜻하고, 시므온은 "들음"을 뜻하며, 레위는 "연합/붙음"을 뜻하고, 잇사갈은 "보상"을 뜻하며, 스불론은 "영예/거처"를 뜻하고, 요셉은 "더함"을 뜻하며,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을 뜻한다.

유다 지파의 사자를 따르는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며, 야곱이 그랬듯 하나님과 씨름하는 시험의 과정을 지나며 복을 받는다. 이 씨름을 통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이루어지는 성화의 과정 가운데 죄가 잊히고, 그 결과 언약적 관계로 그리스도께 결속된다. 그들의 상급은 그리스도의 보좌에서 그분과 함께 영예롭게 거하는 것, 곧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여 자신의 나라를 확장하시며 바빌론에서 큰 무리를 불러내어 자신의 오른손의 아들들로 삼으실 때 하늘에 앉히심을 받는 것이다.

레아의 여섯 아들은 르우벤, 유다, 시므온, 레위, 잇사갈, 스불론이었다. 그의 여종 실바의 이름은 '향기로운 흙'을 뜻하며, 그녀는 두 아들 곧 갓과 아셀을 낳았다. 라헬의 두 아들은 요셉과 베냐민이었다. 라헬의 여종 빌하는 '수줍거나 겁이 많은'이라는 뜻이고, 그녀의 아들은 단과 납달리였다. 예언적 관점에서 여기의 계보는 여러 가지로 생각할 거리를 제공한다. 창세기 5장의 알파와 열 세대와는 달리, 오메가는 자기만의 특정한 예언적 변수들과 함께 열두 후손을 둔다. 십사만 사천에서는 단이 언급되지 않으며, 므낫세가 그의 형제 에브라임을 대신했다.

창세기의 알파 족보는 요한계시록의 오메가 족보와 상응한다. 이는 창세기가 구원에 관한 그리스도의 신적 사역을 밝히고, 요한계시록은 그 알파 예언의 오메가적 성취 속에서 바로 그 알파 예언에 제시된 약속과 예언을 완전하게 성취하는 자들이 누구인지 지목하기 때문이다.

이 두 라인의 적용은 신학자들에 의해 종종 이루어지지만, 결코 line upon line 방법론의 관점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의 두 족보는 하나님께서 이차적 수준에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보여 주는 두 증인을 제공한다. 하나는 기록된 그대로의 문서적 증언이고, 그 증언 안에 있는 이차적 라인은 상징적 수준에서 제시된다. 신학자들은 대개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에서 이름의 의미를 통해 전달되는 메시지에 대한 표면적 관찰을 넘어서지 못한다. 그들은 자신들이 보는 것을, 이름의 의미 속에서 은유를 볼 줄 아는 그들의 경건한 체하는 능력이 이를 입증하듯, 오히려 자신들의 인간적 지혜를 더 드러내는 하나의 신기함으로 취급한다. 그들은 이스마엘의 열두 아들에게 제시된 메시지를 결코 보지 못한다. 그들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의 족보를 제대로 보지 못한다. 그들은 유다의 마지막 일곱 왕의 족보와 이스라엘의 마지막 일곱 왕의 족보, 유다의 처음 일곱 왕의 족보나 이스라엘의 처음 일곱 왕의 족보도 보지 못한다.

내가 그들이 보지 못한다고 말할 때, 내 뜻은 이렇다. 네가 구글에 이 족보들에 대한 가르침이 있느냐고 물으면, 창세기의 아담에서 노아까지에 대해서는 “예”, 또 십사만 사천인에 대해서도 “예”라고 답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아브람의 열 자손을 이런 방식으로 적용하는가? 아니다. 가인의 족보와 셋의 족보를 적용하는가? 한다. 그러나 실제 의미와는 너무 먼 이야기라 마치 딴 주제를 다루는 것과 같다. 의심할 여지 없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그리스도 족보도 다루지만, 또다시 한참 빗나간다. 왜 그게 중요하냐고 묻는가? 나는 이 예언적 성격의 족보들에 대한 개관을 제시하려고 하며, 처음부터 분명히 해 두고 싶은 것은 내가 성경적 예언의 상징으로서 네 번째 세대의 의미를 규명하려 한다는 점이다. 이들 족보에 대한 개관은 그 점에서 도움이 되겠지만, 뒤이어 나올 것들에 대한 단순한 요약이 이 계보들에 관해 이해해야 할 전부라고 여긴다면, 그것은 누구에게나 부주의한 일일 것이다.

아담에서 노아에 이르는 계보 이후, 창세기 4장과 5장에는 두 계보가 제시된다. 그 두 계보는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으로 대표된다. 아담에서 노아에 이르는 계보가 열 명의 후손을 제시하는 것과 달리, 셋과 가인의 계보는 둘 다 여덟 명의 후손을 열거한다. 그러므로 이를 네 세대로 이루어진 두 구간으로 보아야 한다. 셋과 가인은 언약의 상징이며, 가인은 이사야 28장과 29장에서 말하는, 넘쳐 흐르는 재앙 때에 폐지될 죽음의 언약을 맺는 자들을 대표한다. 그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들이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이들은 생명의 언약을 맺으며, 베드로전서 2장에 따르면 ‘주께서 선하심을 맛본’ 자들, 곧 ‘택하신 족속’이다. ‘많은 이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짓지만, ‘택함받은 이들’은 적다.

가인의 계보는 이름들의 교향곡 속에서 울리는 반역의 화음이다. 왜냐하면 그 이름들이, 하늘의 심판을 맞은 뒤 사람들이 목적 없이 방황하게 만드는 헛된 인간의 영광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경고를 무시한 채 가인의 계열은 인간의 예술로 대표되는 복수심에 찬 인간의 권능을 걸치고 거짓된 신성을 내세우며, 철의 문화를 단조한다. 아름답지만 폭력적이고, 희망은 메말라 있다. 바로 그 마지막 진술이, 이름들에서 도출되는 가인의 여덟 대에 담긴 메시지의 개요다.

셋의 계보는 가인의 계보에 은혜로 응답한다. 인류에게 주어진 언약함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은 하늘이 임할 때 그들의 슬픔이 찬양으로 바뀔 것이다. 영광으로 오르는 길을 신실하게 걸으며, 시련의 기간 동안, ‘소망’의 외침이 구원의 물을 통해 안식을 가져올 때까지. 마지막 문장은 이름들에서 도출된 셋의 여덟 대에 담긴 메시지를 개관한 것이다.

여덟 세대를 네 세대씩 두 묶음으로 나누는 이유는 언약의 첫 단계에서 확립된다. 곧 이집트에서의 속박에 대한 예언이 400년으로 규정되고, 또한 그 400년이 네 번째 세대에 끝난다고 밝힐 때이다. 바울의 증언이 알파 언약의 예언에 통합되면, 각 기간이 네 세대로 이루어진 215년의 두 기간이 도출된다. 430년 속의 여덟 세대는 215년의 두 기간을 나타낸다. 첫 번째 기간은 요셉을 알았던 선한 바로로 대표된다. 215년이 지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바로가 등장했고, 그때 다음 네 세대의 묶음이 시작되었다.

두 시기로 균등하게 나뉘어 각기 네 세대의 고유한 기간으로 분명히 구획된 여덟 세대라는 틀은, 카인과 셋의 여덟 세대를 같은 방식으로 적용하는 것을 뒷받침한다. 그렇게 적용하면 셋의 여덟 세대가 카인의 여덟 세대와 대응하게 된다. 카인은 짐승의

표를 받는 다수를, 셋은 하나님의 인을 받는 소수를 대표한다. 카인은 인류의 표상이고, 셋은 노아 언약의 맥락에서 신성과 결합된 인류의 표상인 반면, 요셉과 모세의 계보는 아브람 언약의 맥락에 있다.

그리고 11장에서는 선택된 백성의 족보가 셈에서 아브람에 이르는 열 개의 이름으로 제시된다. 11장은 바벨탑 이야기이지만, 동시에 아브라함으로 대표되는 선택된 백성의 족보이기도 하다. 11장은 하나님과 세 부분으로 된 언약을 맺게 될 선택된 백성을 소개한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 단계는 22장에서의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일이었다. "열한 장"은 알파의 시작이고 "스물두 장"은 오메가의 끝이다. 이름의 의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필요한 믿음은, 그분의 말씀에 매겨진 번호들 속에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 데 필요한 믿음과 다르지 않다. 신학자들이 다루지 않는 족보의 한 적용은 이슬람의 상징인 이스마엘의 족보다.

또 이들은 그들의 세대에 따른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이다. 이스마엘의 맏아들은 느바웃이고, 게달과 아드브엘과 밍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 하달과 데마와 여두르, 나비스와 게데마이다.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며, 그들의 성읍들과 보루에 따른 이름대로, 각 민족대로 세워진 열두 방백이었다. 창세기 25:13-16.

이 열두 이름의 정의들을 하나의 진술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예언적으로 볼 때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전사로 이름난 다산의 짙은 피부를 지닌 민족이지만, 1840년 8월 11일과 이어지는 2001년 9월 11일에 역사적으로도 예언적으로도 슬픔을 겪는다. 그들은 성경 역사에서는 '동방의 자손'이라 불린다. 그들은 히브리 성소 예식에 사용되는 향기로운 향품들이 재배되는 아라비아에서 기원했다. 'assassins'라는 단어는 이슬람 역사에서 유래했으며, 침묵 속에서 이루어지는 죽음을 나타낸다. 십자군 시대에 이슬람은 가톨릭 유럽을 봉쇄하고 에워싸고 포위 공격을 가했으나, 그 뒤 그들이 제지된 것은 1840년부터 1844년에 이르는 회복의 도래를 알리는 표지가 되었고, 또한 9/11에서 일요일 범 위기에 이르는 때까지도 그러하였다."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열두 이름의 정의는 모두 앞선 진술에서 굵은 글씨로 표시되어 있다.

이스마엘의 후손 계보에 나오는 열두 이름은, 목록에 이스마엘까지 포함하면 열셋이 된다. 열셋은 '반역'을 상징하는 숫자인데, 하갈이 바로 그 일을 했고, 그로 인해 아브라함은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도록 허락하게 되었다. 바울은 그 사건을, 하나님이 자신의 그리스도인 신부와 언약을 세우시는 동시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옛 이스라엘이 내쫓김을 당함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다른 하나는 자유한 여자에게서 났느니라. 그러나 여종에게서 난 자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한 여자에게서 난 자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이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을 가리킨다. 하나는 시내 산에서 비롯되어 종이 되게 하는 것이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이며, 지금 있는 예루살렘에 상응하여 그 자녀들과 함께 종 노릇하느니라. 그러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로우며,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 기록되었으되, "아이를 갖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해산의 고통을 겪지 않은 자여 소리쳐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더 많음이라" 하였느니라. 이제 형제들아, 우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니라. 그러나 그때에도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지금도

그러하니라. 그러나 성경이 무엇이라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쫓으라. 여종의 아들은 자유한 여자의 아들과 함께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한 여자의 자녀니라. 갈라디아서 4:22-31.

이스마엘은 이슬람의 상징이며, 이스마엘의 어머니 하갈은 사망의 언약에 속한 교회의 상징이다. 이삭은 기독교의 상징이며, 사라는 생명의 언약에 속한 교회의 상징이다. 이러한 이유로 이스마엘에게는 열두 아들이 있었는데, 열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상징하며, 이슬람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모방한 모조품이다.

복음서에는 그리스도의 족보가 두 개 있다. 하나는 마태복음에, 다른 하나는 누가복음에 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불리는 예수가 태어났다. 그러므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모두 열네 대이고, 다윗부터 바빌론으로 끌려가던 때까지가 열네 대이며, 바빌론으로 끌려간 때부터 그리스도까지가 열네 대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러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되어 있을 때, 그들이 함께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드러났다. 마태복음 1:16-18.

마태복음의 족보는 14씩의 동등한 세 기간을 식별하며, 이것들이 합쳐 42에 해당하는 하나의 기간을 이룬다고 말한다. 모세가 언약 역사의 알파라면, 그리스도는 언약 역사의 오메가이다. 모세는 그리스도가 “자기와 같은 분”이 될 것이라고 예언한다. 모세는 120년의 생애를 40년씩 세 기간으로 보냈다. 모세 생애의 각 40년 기간을 줄을 맞춰 나란히 놓아 보면, 그것은 가데스에서 결론을 맺는데, 가데스는 1863년과 일요일 법을 상징한다. 그리스도의 세 기간은 각각 다윗, 바벨론 포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로 언약을 확증하신 때에 끝난다. 다윗은 일요일 법 때에 승리하는 교회의 들어 올림을 대표하고, 두 번째 선은 일요일 법 때에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미련한 처녀들을 지목한다. 세 번째 기간은 십자가에서 끝나며, 이는 다시 한 번 그리스도께서 14만 4천과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큰 무리와는 노아의 언약을 확증하시는 그 일요일 법을 예표한다.

이 두 선을 서로 겹쳐 놓을 때 이해되는 바는 놀랍다. 모세의 120년은 노아의 120년과 연결되고, 그리스도의 마흔두 세대는 일요일 법령 때 적그리스도가 상징적인 42개월 동안 통치하는 것과 연결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다투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도 육체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그의 날은 백이십 년이 되리라. 창세기 6:3.

아브라함과 그의 언약을 강조하는 마태복음의 족보와 더불어, 누가복음이 제시한 그리스도의 족보는 창조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이로써 에덴에서 아담이 깨뜨린 생명의 언약을 강조한다. 누가복음의 족보는 예수로부터 시작하여 그의 계보를 거슬러 하나님의 아들로 지칭되는 아담까지 올라간다. 그 계보는 완전한 둘째 아담에서 끝나며, 완전한 첫째 아담에서 시작된다. 첫째 아담에서 둘째 아담까지는 77대로 제시된다.

성경의 족보는 진리의 계보를 나타낸다. 우리는 방금 진리를 확립하는 데 필요한 증인의 수를 훨씬 넘어서는 여러 사례를 확인했다. 이 족보들은 역사적 성취와 미래 예언의 음성을 담고 있으며, 또한 그 안에 배치된 수적 수수께끼들이 두 번째 음성을 제공하므로, 비밀들을 놀랍게 헤아리시는 분 Palmoni의 음성도 담고 있다. 그 두 음성은 또 다른 세 번째 음성과 함께 들리는데, 그것은 사람과 장소와 사물의 이름을 포함하여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놀라운 언어학자의 음성이다.

요한이 자기 뒤에서 나는 그 음성을 보려고 돌아섰을 때, 그것은 많은 물소리와 같은 음성이었고, 다니엘이 같은 환상을 보았을 때에도 그의 음성은 무리의 음성이었다. 성경의 겉으로 드러난 메시지와 그 메시지 속에서 발견되는 이름들, 그리고 그 메시지 안의 숫자들은 하나의 본문 속에 있는 세 가지 음성이다. 세 가지 음성을 지닌 한 줄을 가져다가 그것을 나란한 줄 위에 겹쳐 놓으면, 세 가지 음성은 많은 음성이 된다.

보좌로부터 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그의 모든 종들아, 또 그를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든 큰 자든 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또 나는 큰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의도 같고, 큰 우레 소리와의도 같은 소리를 들었는데,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다스리시도다." 요한계시록 19:5, 6.

가장 중요한 계보들 가운데 일부는 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서 찾아볼 수 있다. 이스라엘(북왕국)의 첫 일곱 왕은 아합, 이세벨, 엘리야로 끝나며, 따라서 일요일을 대표한다. 북방 지파들의 마지막 일곱 왕의 계보는 일요일에서 시작하여, 다니엘 12장에서 미가엘이 일어설 때인 인류의 은혜시기의 종결로 끝난다. 유다의 첫 일곱 왕은 일요일부터 미가엘이 일어설 때까지의 역사를 보여주고, 마지막 일곱 왕은 일요일로 이어지는 역사를 가리킨다. 두 개의 계보가 있으며, 둘 다 알파의 역사와 오메가의 역사를 지닌다. 알파 역사는 9/11에서 일요일까지의 기간이고, 오메가 기간은 일요일에서 은혜시기의 종결까지이다. 이스라엘의 첫 일곱 왕은 유다의 마지막 일곱 왕과 대응하고, 이스라엘의 마지막 일곱 왕은 유다의 첫 일곱 왕과 대응한다.

다음 글에서 계속하겠습니다.

끝까지 굳게 서라

[요한계시록 1:1, 2 인용] 성경 전체가 계시이다.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계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오며, 모두 그분을 중심으로 한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 곧 창조와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의 것이 된 그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마지막 날들을 위한 진리를 주시고 머지않아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보이시려고 밧모 섬에 유배되어 있던 요한에게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적 계시의 위대한 청지기이시다. 이 땅 역사의 마지막 장면들에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우리는 그분을 통해 알게 된다. 하나님께서 이 계시를 그리스도께 주셨고,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요한에게 전하셨다.

사랑받던 제자 요한은 이 계시를 받도록 택함을 받은 사람이었다. 그는 처음 택함받은 제자들 가운데 마지막 생존자였다. 신약 시대에 그는 구약 시대에 선지자 다니엘이 받았던 것과 같이 존귀히 여김을 받았다.

요한에게 전달될 지시는 너무나 중요했기에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내려와 그분의 종에게 그것을 주시고, 교회들에게 보내라고 명하셨다. 이 지시는 우리가 신중하고 기도로 연구해야 할 대상이다. 우리는 성령의 가르침 아래 있지 않은 사람들이 거짓 이론을 들여오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이 사람들은 오랫동안 높은 자리에 서 있었고, 실행하려는 야심찬 계획을 품고 있다. 그들은 자신을 높이고, 사태의 전반적 양상을 뒤바꾸려 한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 특별한 지시를 주셨다. 그분은 이 땅 역사의 마지막 장면들에 일어날 일들을 책에 기록하라고 요한에게 명하셨다.

정해진 때가 지난 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신실한 신자들에게 현재 진리의 귀한 원칙들을 맡기셨다. 이러한 원칙들은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일에 아무런 참여도 하지 않았던 이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다. 그것들은 처음부터 이 사업에 참여해 온 일꾼들에게 주어졌다.

이러한 경험을 거친 사람들은 우리로 하여금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이 되게 한 원칙들에 대하여 바위처럼 굳건해야 한다. 그들은 하나님과 동역하는 일꾼이 되어, 그의 제자들 가운데서 증거를 싸매고 율법을 봉함해야 한다. 우리의 사역을 성경 진리의 기초 위에 세우는 일에 참여했던 자들, 올바른 길을 가리켜 준 이정표들을 아는 자들은 최고의 가치를 지닌 일꾼으로 여김을 받아야 한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맡겨진 진리에 관하여 개인적 경험에서 우리나라와 말할 수 있다. 이 사람들은 그들의 믿음이 불신앙으로 바뀌도록 내버려두어서는 안 되며, 셋째 천사의 깃발이 그들의 손에서 빼앗기도록 허용해서도 안 된다. 그들은 처음의 확신을 끝까지 굳게 붙들어야 한다.

주께서는 우리가 마지막 사업에 들어갈 때 과거의 역사를 되새겨야 한다고 선언하셨다. 이 마지막 날들을 위하여 그분이 주신 모든 진리는 온 세상에 선포되어야 한다. 그분이 세우신 모든 기둥은 더욱 견고해져야 한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초에서 벗어날 수 없다. 우리는 이제 어떤 새로운 조직에도 들어갈 수 없다. 이는 진리로부터의 배도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의료 선교 사업은 하나님의 백성의 과거 경험에 대한 신자들의 믿음을 약화시킬 수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정결하게 하고 깨끗이 해야 한다. 아름다운 에덴, 그 에덴은 죄가 들어옴으로써 훼손되었다. 이제 우리 사업이 처음 세워질 때 그 설립에 역할을 했던 사람들의 경험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때때로 우리는 세상의 위대한 인물들의 부고를 읽는다. 그들의 때가 한순간에, 갑자기 찾아왔다. 건강하다고 여겨지던 많은 이들이 연회 뒤에, 혹은 자기 높임을 위한 이기적인 계획을 세운 뒤에 죽는다. 이 말씀이 선포된다. '그는 우상들과 연합했으니, 그대로 두어라.' 이는 주께서 더 이상 그를 해로움에서 지켜 주지 않으신다는 뜻이다. 갑작스러운 죽음이 닥치니, 그의 일생의 업적이 무슨 가치가 있겠는가? 그의 생애는 실패였다. 나무가 쓰러지는 것은, 지금까지 그것을 지탱하던 힘이 떠나 그것을 우상숭배의 제물로 내버려두기 때문이다.

남녀는 즐길 무언가를 찾는 데 몰두한다. 그들은 헛된 것에 자신의 영혼을 팔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관용을 거두신다. 그들은 자신의 선택에 맡겨진다.

현재의 진리를 믿는다고 공언하면서도 믿음을 변질시키며 빛 가운데 행하기를 거절하는 자들이 있다. 누가 이제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원칙을 내려놓겠는가? 누가 이제 영혼의 가치를 깨닫기 위해 힘쓰겠는가?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영혼을 잃는다면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또 사람이 자기 영혼과 바꾸어 무엇을 주겠는가? 여러분은 생명의 떡과 구원의 물을 갈망하며 주리고 목마른가?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영혼들의 가치를 여러분은 깨닫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이라 칭하는 자들이 그들의 신앙 고백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가? 그들은 영혼의 가치를 의식하고 있는가? 그들은 진리에 대한 순종으로 그들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려고 힘쓰고 있는가? Manuscript Releases, 제20권, 150, 151쪽.